

노을 메리 기도편지 vol.3

2021년 1월 30일



노을 메리 기도편지 vol.3

(2021년 1월 30일)



새해,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강서침례교회의 파송을 받다.

지난해 마지막 주(20. 12. 27), 저희는 강서침례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2부 예배에 프론티어스 코리아 대표이신 이현수 선교사님께서 빌립보서 2:5~8 말씀으로 “익숙한 것로부터 결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시대에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고, 또한 파송 받는 저희 가정과 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현수 선교사님의 설교를 저도 정식으로 들어 본 것은 처음이라서 새로웠는데요, 방역 때문에 설치한 아크릴 가림막이 너무 좁아 보일 정도로 큰 제스처가 선교사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게스탄에 가서 아기가 되고 바보가 되어서 그 땅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익숙한 것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날 정부의 방역시책에 따라 교회에 20명 이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송출하여 함께 예배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안지팀이 현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해서 참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희 가정만 파송하지만 마음으로는 모두를 파송하는 거죠~) 마지막에 함께 특송으로 주님 앞에, 성도를 앞에 우리의 마음 보이고 결단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2. Team ANJI의 준비

현재 저는 더 이상 교회로 출근하지 않고, 집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후원자들도 만나고, 필요한 연락도 하고, 선교 준비에 필요한 정보도 정리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하루는 한파로 집에 수도가 얼어서 난민의 삶을 체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4박 5일을 팀원들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팀원들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서 어려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전화위복이 되었네요.

보통 저희 팀은 현재 주 1회 줌으로 만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 자체가 우리의 주님이 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과 순종이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3월 13~25일 다게스탄 정탐(리서치)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도 마하치칼라에 가서 그곳의 학교, 생활, 사역 등 여러 가지로 실제적인 정보를 보고 오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정탐(리서치)을 통해 사역과 생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2. 저희 가정과 팀원들의 후원자 개발에 부족함이 없도록.
3. 출국 전까지 여러 행정적 준비가 빠짐없이 되도록.

